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	
				 인천광역시	
배포일자		2021년 2월 3일(수) 총 3매		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당자	• 사회서비스원지원팀장 임동해 ☎440-2931/010-2216-8697 • 담당자 김민열 ☎440-2933/010-8789-8424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‘코로나19 긴급돌봄 서비스’ 본격 시작
- 2월 3일 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공식 출범 -
-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노인,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 인력 파견 -

- 인천시는 돌봄종사자 및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긴급돌봄공백에 대응하고자 가정, 사회복지시설,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사업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.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시 의료원, 인천시 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단체 및 인천시 사회복지단체 등 총 10개 단체들과 ‘인천시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’ 출범식을 2월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긴급돌봄사업은 지난 12월 1일 인천복지재단을 확대 개편한 ‘인천시 사회서비스원’에서 ‘긴급돌봄지원단’을 구성·운영하며, 돌봄인력은 종합재가센터에 채용된 간호사, 요양보호사 및 대체인력지원센터

돌봄 인력을 포함 60명으로 구성 됐다.

- 주요사업으로는 가족·돌봄인력 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이 가정이나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 - 이용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접수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을 선정해 돌봄지원인력을 파견한다.
 - 시는 지난 1월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며, 국비 65백만원을 지원받아 시비를 포함하여 총 1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.
 - 박남춘 시장은 “가족과 돌봄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, 당사자는 물론 해당 가정과 시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”며, “‘긴급돌봄지원단’이 구성됨에 따라,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- 이어 “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이 끝나더라도 재난 등을 통해 발생하는 긴급 틈새·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시는 부평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당시 확대형으로 준비하여 간호사 2명 및 요양보호사 15명을 채용했으며, 채용된 간호사를

기반으로 전국최초로 코로나19 ‘긴급돌봄 방문간호서비스’를 시행할 계획으로, 대상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·치료 상황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 방문간호 및 방문 돌봄을 한다.

- 또한,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봄 요양보호사·간병인을 모집하여 안전교육 등을 시행한 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·인천시 인터넷방송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